깨끗한 첫눈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려앉겠습니다

포근한 첫눈이 내리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옛날 친구들과 뛰놀던 추억이,
바둑이가 남기고간 발자국이,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 모든 상념을 잊게 한 첫눈처럼
저희 재단은 여러분의 곁에 내려앉겠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친구로 함께하겠습니다.

KANGWON LAND
강원랜드 복지재단

피움 36.5 2021 WINTER Vol.16

KANGWONLAND
WELFARE FOUNDATION
MAGAZINE

ISSN 2586-7571

피움 36.5

OBL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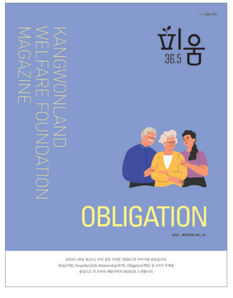
2021. WINTER VOL.16

2021년 <피움 36.5>는 우리 곁을 지켜준 'HERO'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Help(지원), Empathy(공감), Relationship(관계), Obligation(책임)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호마다 폐광지역의 HERO를 소개합니다.

피움 36.5

Kangwonland
Welfare Foundation Magazine

2021. WINTER VOL.16



2021년 <피움 36.5>는 우리 곁을 지켜준 'HERO'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Help(지원), Empathy(공감), Relationship(관계), Obligation(책임)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호마다 폐광 지역의 HERO를 소개합니다.

피움 36.5 2021년 겨울호
통권 제16호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강원랜드 복지재단
발행인 심규호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83
Tel. 033-590-5903~15
Fax. 033-590-5910
기획·디자인 ㈜이팝 Tel. 02-514-7568
사진 휜한 스튜디오

CONTENTS

Special Theme

Obligation

지역과,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강원랜드 복지재단

피움 : OBLIGATION

우리 시대 HERO를 만나다

06 **THEME STORY**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 책임감

10 **희망 피움**
영월군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취업준비>프로그램

14 **공감동감**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유연태 주무관

18 **희망스토리**
그린에너지 지원으로 환경 보호와
절약을 실천하게 된 김봉규 씨

22 **숫자로 보기**
선한 영향력과 책임

24 **힐링 테라피**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업무별 대응방법

28 **복지 아카이브**
개인과 사회의 책임의식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HERO를 찾아서

우리 지역 숨은 HERO의 활약상

34 **리틀 빅 히어로**
보이지 않는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36 **간식을 씁니다**
간식을 씁니다 이벤트 후기

38 **피움 특파원**
정태영삼 특파원이 전하는 현장소식

함께하는 온도 36.5℃

지역과 함께 나아가는 강원랜드 복지재단

42 **정태영삼 맛지도**
겨울에 방문하기 좋은 정태영삼 맛지도

46 **ON AIR**
강원랜드 복지재단 뉴스

50 **편집실 공지**

51 **SNS 광고**

마음을 더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 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함을 전하고있는 영웅들.
피움 36.5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HERO

Obligation

포기하지 않는
책임과 사명으로
이웃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 책임감
책임은 나 자신을 다지는 과정이다

책임, 맡은 바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어쩌면 사람은 탄생과 함께 책임을 갖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무도 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일테니.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사명이 있다. 그 책임을 찾아가는 과정이 삶이라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글. 편집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자유는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라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일을 쟁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며 책임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자신이 표현한 후 생긴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인은 퇴사할 자유가 있지만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감당해야 한다. 모든 결과를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자유에는 무게가 있다.
현대인은 모두 자유를 갈망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모두가 알고 있다. 아이를 교육할 때에도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신과 전문의 포스터 클라인과 자녀교육 전문가 짐페이의 공동저서 <아이는 책임감을 어떻게 배우나>는 이러한 균형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아무리 어린 아이도 자기 삶에 대한 일정 자유와 통제권을 부여받으면 책임감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된다. 스스로 내린 결정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터득하며 지혜와 독립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책임과 자유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가진 이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끝내 성공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우고 자신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가치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만들어 진다

인문학적으로 책임은 '어떻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과로 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다. 현대에서 정의하는 책임은 윤리적인 개념과 떼놓을 수 없다. 맡은 바에 의무를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들이 ESG경영을 선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책임은 결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일본의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자신의 저서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심리학>에서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흔히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온리원이라는 느낌은 인생의 짐을 정당하게 짊어졌을 때 생겨나는 느낌으로, 짐에서 도망치고 그렇게 말해본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로서의 자긍심은 생겨나지 않는다."

-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심리학〉 발췌

짐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질 때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온리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맡은 바를 끝까지 해냈을 때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닿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자신감,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뿌리가 된다. 책임은 이렇듯 '온리원'이 될 근거. 다시 말해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최악의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으로 책임 회피형이 꼽혔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회피형' 인간은 멀리하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책임 회피의 동기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자신감 부족.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다. 책임 회피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서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량이다.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자신의 역량보다 많을 경우,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신의 역량에 비해 많은 업무로 부담감을 느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책임감을 가진 이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끝내 성공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우고 자신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개인의 윤리의식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가 크다. 많은 이들이 책임지지 않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의식이 약한 사람에겐 책임회피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때문에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의 책임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창립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강원랜드의 건립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폐광지역 진폐재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의식주와 직결되는 생활지원 등으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있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존재의 이유, 책임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태어나 지역에 환원하며 상생하는 것이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근거이자 목표인 것이다.
2003년 이후 한 걸음씩 내딛어 온 그 발자취는 2022년 강원랜드 희망재단과의 통합으로 더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앞으로의 한 걸음이 폐광지역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그 한 걸음엔 어떤 책임이, 또 어떤 영향력이 실려 있을까. 그 무거운 발걸음에 앞서 도약을 준비하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참고문헌
- <아이는 책임감을 어떻게 배우나> (포스터 클라인, 짐 페이 북라인 출판)
-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심리학> (가토 다이조 나무생각 출판)
- 취업포털 잡코리아 리서치 <직장인이 꼽은 '오피스빌런 TOP10'>

"가족에게 당당한 엄마가 됐습니다."

영월군가족지원센터 <슬기로운 취업준비>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느끼며 가족을 이끌어 간다. 그 '차이'가 이주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나 사회 적응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모국과 가정을 이룬 나라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를 온 몸으로 경험한 이주 여성들이 이젠 자신의 경험을 살린 다문화 강사로 거듭났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된 <슬기로운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의 이야기다.

글. 편집실 사진. 김준후

탄탄한 준비가 내일의 희망을 만든다

지난 11월. 영월군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슬기로운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다. 4월부터 약 7개월 간 꾸준히 이어진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컴퓨터 교육부터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 등 다채롭게 채워졌다.

"흥미롭고 매력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다문화강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교육 기간동안 칭찬도 많이 들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슬기로운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마스(39, 필리핀) 씨의 말이다. 단정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는 이번 교육에서 한국어 실력이 월등하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지우(33, 네팔) 씨가 마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모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그동안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했는데, 이젠 다문화 강사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강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며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김은주(33, 베트남) 씨.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의를 이끄는 것이 쑥스럽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생활을 10년 넘게 한 결혼 이주 여성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갔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다. 영월군가족지원센터는 이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슬기로운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다문화 강사로서 실제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수업 진행능력 등을 총 110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해 이주여성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주여성의 개성을 살린 취업 솔루션

영월군가족지원센터는 다년간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19년 자체 실시한 영월군 지역주민 서비스 욕구조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창업교육이 절실함을 인지하고 <슬기로운 취업준비>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적극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강화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마스(39, 필리핀)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감을 얻게 되니 한국 생활이 한결 편해졌어요!"
김은주(33, 베트남)

"당당한 전문직을 갖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에요!"
한지우(33, 네팔)

적 자립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영월군가족지원센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총 10명.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이주여성들에게 솔루션을 주기에 충분했다.

마스 씨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특히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PPT 활용법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실무에 집중한 교육이었어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영어강사로 일해 온 경력이 있는 그였지만 다문화 강사로서는 처음인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워주는 실전 중심 교육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

김은주 씨도 덧붙였다. "이런 취업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저희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주니까 자립심이 생겼거든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기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마스 씨와 한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런 저를 보며 가족들도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마스 씨가 동의하자 김은주 씨도 말했다. "남편 혼자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쉽게 일을 못하는 이주여성에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가족의 자랑, 당당한 엄마로 우뚝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은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언어를 공유하며 그 차이를 온 몸으로 메꿔 온 이주여성들이었기에 그들의 다문화 교육이 더욱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또한 자녀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들 앞에서도 '일하는 멋진 엄마'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

김은주 씨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도 생겨요. 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었더니 아이들이 '엄마 멋지다'고 해주더라고요."라고 회상했다.

"맞아요. 아이들이 '엄마는 나라가 두 개라서 대단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라며 한지우 씨도 동의했다.

아이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이들은 더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다문화 강사 취업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김은주 씨는 다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강사로서 역량을 넓히기 위해 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아직 노력은 더 해야겠지만, 당당히 일하는 엄마로, 아내로,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두 눈이 반짝인다.

취업은 이주여성에게 꿈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긍심까지 고취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나아가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화목해진다고 하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취업준비>와 같이 꿈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폐광지역 복지발전의 동반자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유연태 주무관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지 대상자를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연결해 주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이 있어 오늘도 폐광지역엔 희망의 빛이 드리운다.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협업하며 복지의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유연태 주무관을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김준후

Q. 안녕하세요. 현재 맡고 계신 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피움 독자 여러분. 저는 일반서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연태 주무관입니다.

Q.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대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의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대상자분들이 직접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사업 안내를 받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대상자와 재단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대상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단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필요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진행 중인 삼척시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주민참여형복지사업이 두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정화사업과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입니다. 실내공기정화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실내 공기 탈취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기탈취서비스를 받은 가구에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전달하여 식물을 직접 돌보고 가꾸는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획했습니다. 거주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은 1인 가구 퇴원환자에게 2개월 정도의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귀를 돕는

1인 가구 맞춤형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해 2020년 기준 전국 32%, 삼척시 48%의 1인 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19년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기획자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 계획을 구상하여 2020년, 2021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강원랜드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폐광지역 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공통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A. 1인 가구가 퇴원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를 고민한 답이 바로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원해 있다가 혼자 퇴원하면 집안은 정리가 안되어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변변하게 없을 것이며 병원치료는 끝났지만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기간도 더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퇴원해서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 또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한 달 정도는 소요되겠지만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은 당일 또는 최대 3일 이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죠. 2019년 당시의 담당자들이 포인트를 잘 잡아 사업을 구상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Q. 이렇게 신속한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A.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민관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가구방문 욕구사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시 협의체에서 서비스 결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의 절차를 거칩니다.

Q.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의 특장점이 이런 것이군요.

A. 기존의 복지가 관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비스를 관 주도로 진행했다면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은 관이 참여하되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주민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주민을 위한 복지하기, 주민이 직접 내 이웃을 돌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넓히고 주민 간 관계가 촘촘이 이루어져 소외되는 이웃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직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고 현재는 자원봉사영역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것 입니다.

Q. 실무자로서 특별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 혹은 기억에 남는 대상자도 있지 않나요?

A.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람을 느끼기 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그 자체로 기운이 나더라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지원을 발판 삼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는 것이 복지직 공무원들의 보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70세가 넘은 남자 어르신인데 그 연세에도 건설현장 일용근로를 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손녀를 부양하며 지내시던 분입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셨는데 생활비는 어떻게든 일을 해서 마련을 할 테니 할머니 의료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평생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인생의 어른을 뵙는 느낌이었습니다.

Q. 삼척시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나요?

A. 삼척시는 1인 가구 비율이 48%인 곳입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죠.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동네안심케어사업과 같은 1인 가구 대상 서비스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고 병원동행서비스도 시행이 되면 좋겠지요.

Q. 실무자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높아졌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되면서 주민들의 기본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재난, 질병, 실직, 사고로부터의 위험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만나뵙게 되는 대상자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속에 쌓인 한이 많은 분들이죠. 이 분들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통 읍·면·동에 있는 복지 담당자입니다. 저는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이 대상자 분들과 만나 충분한 도움과 안내를 들리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과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적정한 복지 인력을 배치해 담당자들이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Q.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공공복지의 틈새를 메워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나 예산이나 지침의 한계로 공공복지 영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참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죠. 추진하는 사업들 특히 주민참여형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 영역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와 접점이 있어서 참고가 되고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폐광지역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복지동료로 저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린에너지 지원으로 환경 보호와 절약을 실천하게 된 김봉규 씨

쪽배 하나에 몸을 맡기고 줄을 잡아야만 닿을 수 있는 섬. 그곳에 김봉규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살 터전을 지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강을 건너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나름의 운치도 낭만도 있는 집. 단 하나의 고민거리였던 전기료는 최근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그린에너지 지원으로 해결됐다. 부부의 노년을 아름답게 비춰 줄 힘이 든든하게 채워졌다.

글. 편집실 사진. 김준후

환경과 절약을 생각한 그린에너지

“전기요금만 줄어도 생활이 한결 낫죠. 환경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그린에너지 지원사업을 받은 김봉규 씨 부부의 말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집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하게 됐다.

“처음에 읍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어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해 보지 않겠느냐고요. 반가운 소식이었죠. 올 초에 처음 지원했을 때는 아쉽게도 대상자가 되지 못했는데 가을에 선정되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봉규 씨가 살고 있는 집 지붕엔 얼마 전 설치를 마친 태양광 판넬이 빛나고 있었다. 유독 따사로운 햇살이 그의 집을 비추던 날. 그의 마음은 평소보다 더욱 따뜻했다.

“아직 설치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줄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벌써 요금 부담이 적어진 것 같아요!”라며 기대하는 김봉규 씨. 일 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노부부이기에 전기 요금이 부담되던 차였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그린에너지 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희소식. 척추신경종양으로 왼쪽 손이 불편해 일하기가 쉽지 않은 그에게는 전기 요금만 줄어도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절반 정도만 줄었으면 좋겠어요. 전기세도 좀 줄고, 친환경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요즘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특히 식물 가꾸고 농사짓고 살다보니 기온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평소에는 비닐봉투 하나라도 재활용 하려고 노력하죠. 여유만 되면

진즉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돈이 웬수라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도 아끼고 환경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물을, 이제는 전기를

김봉규 씨는 젊어서 동원탄좌에서 일했다. 13여 년간 탄광을 드나들며 그의 아내와 부지런히도 살림을 꾸렸다. 당시 사택은 지금의 강원랜드 자리였다.

"80년대 초까지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물이 귀할 때라, 산 같은데 물줄기를 찾아서 양동이를 갖다 대고 조금씩 받아오기도 했죠. 읍에서 물차가 오길 기다렸다 받기도 하고, 동네에서 물 한 동이씩 길으려면 30분씩 기다려서 길러왔죠. 추운 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물을 구하려 다녔어요. 탄광에서 일하면 씻어야 하고, 식구들도 먹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여간 힘든게 아니었으니까요."

기본 생활을 위해 물을 필사적으로 구해야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김봉규 씨의 아내가 말했다. 지금은 물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만 기본 생활비로 들어가는 각종 요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젊어서는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는 이젠 손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일터로 향한다. 10년 전 쯤부터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그녀 대신 집에서 식구들 먹을 농작물을 가꾸는 것은 남편의 몫이다. 콩, 고추, 들깨, 참깨, 옥수수 등. 자급자족을 위해 짓기 시작한 농사지만 이를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가 필요하다 보니 전기 요금이 만만찮게 올랐다.

"이것저것 넣다보니 자꾸 늘더라고요. 김치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작물도 넣어야 하니 보관용 냉장고도 있고요. 아무래도 자식들이 오면 먹여야 하니 이것저것 쟁여두게 되네요."

식구들 먹일 음식거리가 쌓일수록 늘어가는 전기 요금이 걱정인 부부. 하지만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뒤로 한시름 놓았다.

"나이를 더 먹으면 일 하러 다니기도 힘들텐데, 전기 요금이 기본 생활비잖아요. 예전에 물 길러왔던 것 처럼요. 힘이 없어 이런 생활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때를 생각하면 부담이 됐는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

지금의 집에 둥지를 튼 건 약 20년 전. 오랜 광산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김봉규 씨 부부는 오로지 편안하고 아늑한 집을 원했다.

"광산 일이 워낙 힘드니까요.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도

"요즘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특히 식물 가꾸고 농사짓고 살다보니 기온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평소에는 비닐봉투 하나라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죠. 여유만 되면 진즉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돈이 웬수라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도 아끼고 환경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했었지만 그만한 벌이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일터에 보내놓고도 노심초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찾게 됐죠."

그래서 찾은 곳이 동강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작은 섬. 강으로 둘러싸여 산과 나무가 방패역할까지 해주니 꼭 부부만을 위한 요새같았다. 아늑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 김봉규 씨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

"처음 살던 집은 태풍 로사 때 물난리로 수해가 나서 다시 집을 지어야 했어요. 2001년도에 집을 완성하고, 그 다음해에 이 집에서 손자를 봤죠. 애착이 남다른 집이예요."

직접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재료를 가져와 집의 구조를 잡았다. 마침 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가교까지 있던 당시라 가능했다. 가교가 없어진 지금은 생활 때문에 매일 쪽배를 타고 시내로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부부의 삶을 담기엔 충분히 멋진 집이 완성됐다.

"그놈의 낭만 때문에 여기서 살게 됐어요. 처음엔 낭만이었는데 지금은 아휴. 오가는 게 일이죠." 라고 말하는 아내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집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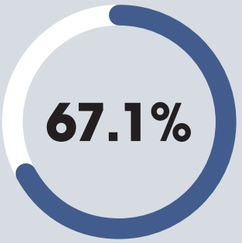
나루터에서 배를 대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 오랫동안 길러온 개들과 산을 오가며 자유롭게 지내는 고양이, 그리고 가족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작은 밭들을 지나야 현관에 닿는다. 그 사이 늦가을의 낙엽이 땅을 덮고 있었다.

"낙엽을 보면 가을이구나, 하며 즐기지 쓸어내야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저희는." 개와 고양이, 산과 강을 벗삼아 살아가는 부부. 그들에게도 겨울이 찾아왔다.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은 역시나 서로의 존재. 그 집을 채우는 온기와 빛이 계속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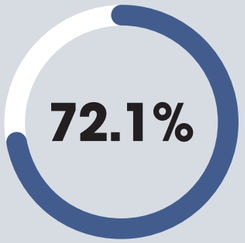
선한 영향력과 책임

사회,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 그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이 아니었을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의식을 숫자로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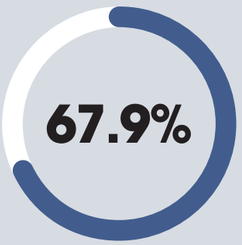
자료출처. 통계청, 트렌드 모니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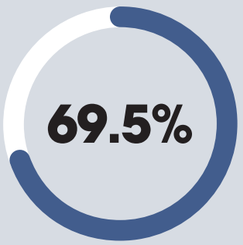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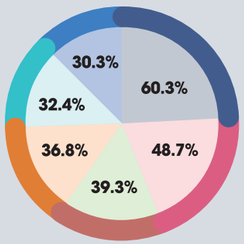
요즘 기부활동은 IT 기술
접목으로 더 쉽고 간편해졌다.



최근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부 방법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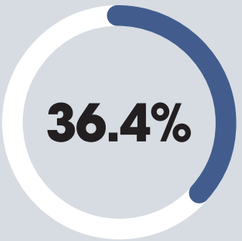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천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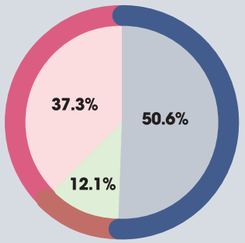


기부의 유형 (중복응답)

1위 금전기부 60.3%
2위 적립 포인트 기부 48.7%
3위 SNS참여형 기부 39.3%
4위 물품 기부 36.8%
5위 단체 모금기부 32.4%
6위 물품구매 기부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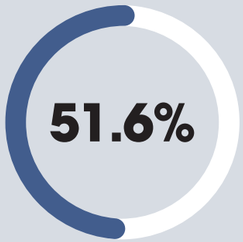


최근 3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한국 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낮은 편 50.6%
잘 모름 12.1%
높은 편 37.3%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한다

52.9%

착한 소비는 친환경적인 소비이다

착한 소비의 의미를 물었을 때 친환경적인 소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비가 48.2%를 차지했다.

80.6%

실제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착한 소비를 주저한다

소비 종착지의 불확실성이 착한 소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착한 소비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68.4%에 달해 기업의 투명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60%

코로나19 감염은 환자 탓이 아니다

확진자의 60%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환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반인은 34.6%에 그쳐,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의 생각 차이가 있었다.

55.6%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명의식이 있다

직장생활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66.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48.8%로 중간을 밑 돌았다.

70.1%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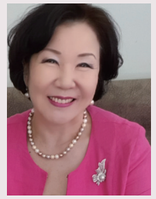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59%, 입이 무거운 사람이 53.1%로 뒤를 이었다.

84.2%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에 책임져야 한다

최근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영향력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인과 유사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업무별 대응방법
복지종사자들의 따스한 겨울나기



코로나와 함께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겨울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 마음의 난로가 놓여 오롯이 놓여 지기를 바라는 계절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따스한 난로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의 길을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문제해결 기본방안을 제언합니다. 복지종사자분들께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대처요령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언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방안입니다.

글.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대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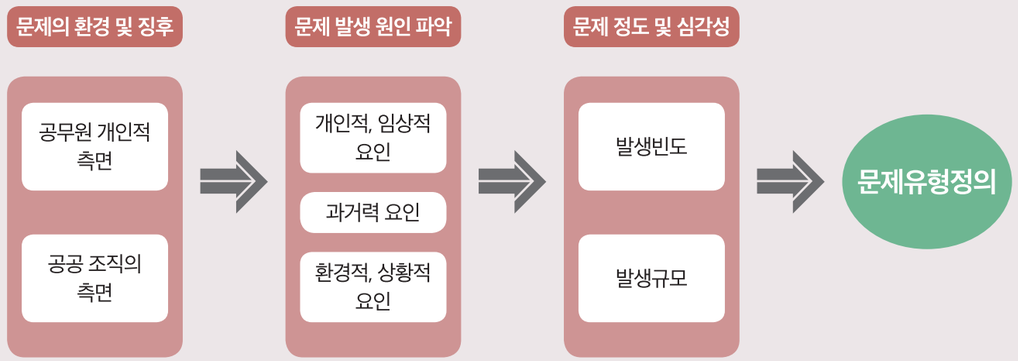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복지종사자들은 업무에서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빈도), 한번 문제나 위험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규모, 강도)를 상호간 파악한다. 문제의 발생빈도가 잦고 문제의 규모가 큰 것은 대책마련의 우선순위가 높고,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것은 그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제발생 빈도보다 문제의 강도를 고려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기관에서 여러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유형>

발생빈도 ↑ 고		
	위험3 발생빈도는 높지만 대체로 큰 손실이 아닌 위험으로서 빈도의 경감을 도모하며, 4유형의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위험의 보유와 보험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유형.	위험1 발생빈도가 높고 규모도 큰 위험으로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유형.
발생빈도 ↓ 저	위험4 발생빈도와 규모가 낮은 위험으로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만, 보유가 중심이 되는 유형.	위험2 발생빈도가 낮지만 규모가 큰 위험으로서 강도의 경감을 도모하며, 4유형의 전환을 도모하는 유형.

소 ← → 고
발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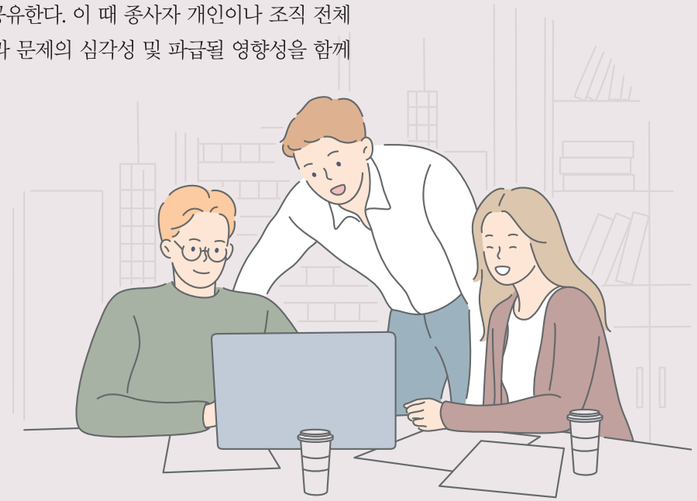
<문제의 유형 및 정의 과정>



파악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하기

직면한 문제의 유형 및 정의를 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조직 구성원 및 조직 내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업무수행 문제는 복지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다른 조직 복지종사자들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해결에 대한 개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은 한정된 조직 내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내 구성원 및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이 함께 공유되고 합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종사자는 문제의 질환 및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조직 내 상사나 공식적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조직차원의 문제로 공유한다. 이 때 종사자 개인이나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및 파급될 영향성을 함께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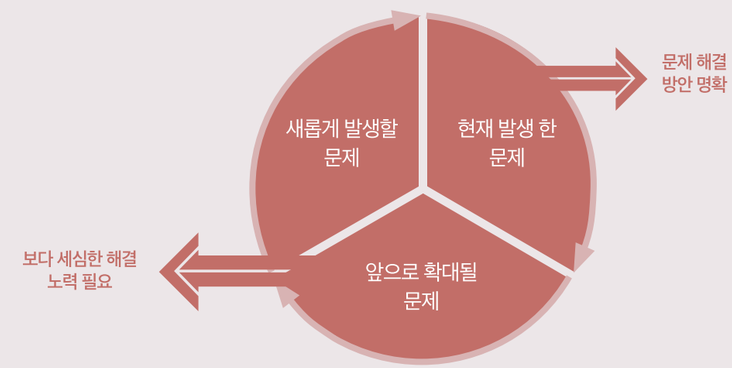
둘째, 파악한 문제가 현재 발생한 문제인가, 현재의 문제가 향후 더욱 조직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의 문제인가, 또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가를 공유한다. 현재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단순한 또는 명확한 개입이나 문제해결 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비록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좀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이다.

셋째, 문제에 대해 조직 내적 및 외적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어떠한 문제는 조직 내의 자원과 인력 투입 등의 개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는 조직 내의 개입 범위를 넘어 조직 외의 개입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조직 내에서 냉정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개입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조직 내의 자원과 인력 등으로 충분한지 합의한다.

다섯째, 개입할 문제에 대한 개입 시간 등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고, 해결 목표를 기점으로 단계적 개입 시간을 구체적으로 같이 설정한다.

<문제 영향력 파악>



합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적 계획수립하기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일정한 개선을 위해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험의 영역
- 위험의 수준
-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단계의 요약
-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관의 자원(직원, 간행물, 위원회 혹은 전략팀, 법적 자문, 윤리자 문, 직원개발 등)
- 행동계획의 실행을 감독하는 직원
- 행동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계획표
-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설정
- 행동계획 실행을 모니터링 하는 계획

개인과 사회의 책임의식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책임 의식'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거창한 책임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책임 의식'에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복지큐레이터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정리. 편집실

장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민권 복지큐레이터

#1

틸트 페어런팅이란?

'내 아이에게 각도를 기울이는 교육'이란 뜻으로,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쓴 책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에 소개된 개념이다.

#2

정상을 규정하는 사회에 반기를 들다

'정상성'을 내세워 이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장애'로 구분 짓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틸트 페어런팅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

#3

사실, 장애의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나 결핍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자기만의 역량을 발휘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장애로 구분지은 사회야말로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주체다.

#4

사례1. 저상버스 운영

휠체어를 사용하는 개인이 버스를 타지 못하다가 저상버스를 만들어 탑승이 가능하게 됐다면 그동안 그가 버스를 타지 못 했던 것은 장애가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가 탈 수 없던 버스의 문제였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저상버스를 지원해야 한다.

#5

사례2. 장애학생 수업 지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학생이 있다면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문제아로 여겨 차별과 배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습에 흥미와 수준에 맞도록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교사나 그 밖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6

시선이 변해야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치명적이 몰입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흥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재미없는 영화를 볼 때면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는가.

개인의 책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안나 복지큐레이터

#1

당신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를 읽고, 행동하는 소수가 되라는 구절이 가슴에 닿았다. 나는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 스스로를 되돌아 본다.

#2

나는 생활형 환경운동가이다.

거창한 환경운동은 못한다. 죄책감을 가진 채로 일회용 기저귀도 사용하고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했고, 일회용 생리대도 사용한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기, 분리수거 잘하기를 시작한다.

#3

나는 생활형 인권운동가이다.

거창한 환경운동은 못한다. 죄책감을 가진 채로 일회용 기저귀도 사용하고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했고, 일회용 생리대도 사용한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들고 다니기, 분리수거 잘하기를 시작한다.

#4

나는 생활형 페미니스트이다.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은 사회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광장에 나가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 남편과 아들들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함께 살아가는 여성과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내 남편과 내 아들이 '남성과 여성은 사회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내 몫의 페미니즘 운동을 할 것이다.

#5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와 같이 평범한 한국인도, 평범한 사회복지사도, 평범한 엄마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사회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이 가질 것이다.

아주 사소한 실천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면

김혜란 복지큐레이터

#1

제로웨이스트, 나도 해볼까?

허윤정의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쟤도 하는데, 나도 해볼까?'라의 '쟤'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작가의 바람처럼,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도전할 용기를 선사했다.

#2

텀블러를 들고 나갈 용기

지구를 위해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든 적은 없지만 텀블러를 들고 집을 나설 용기. 거창한 무엇가는 아니지만 핸드워시 대신 비누를 쓰고,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 칫솔을 쓰는 사소한 실천. 제로웨이스트를 가능케 하는 것은 딱 그정도의 용기와 실천이면 된다.

#3

쓰레기를 줄이면 달라지는 것들

익숙한 것에서 딱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새로운 경험이 펼쳐진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쓰레기를 줄이는 덕분에 종종 내가 아닌 모두를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기도 한다. 쓰레기를 비운 공간에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이다.

#4

희한하게 불편한데 편했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내 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일회용품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만족을 넘어선 흡족한 상태. 어쩌면 나는 이런 삶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출처. 강원랜드 복지재단 복지아카이브 콘텐츠

정민권 복지큐레이터 - 장애의 돌봄은 국가의 책무다
전안나 복지큐레이터 - 북에세이 ④ 분노하라
김혜란 복지큐레이터 -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Kangwonland
Welfare Foundation
Magazine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합니다
지역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복지 현장에서 손길을 보태는 동반자도
복지 사업 대상자도
오랜 시간 지역을 지킨 어르신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책임감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겨울호는 재단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 뼘 더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준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히어로입니다.

ENGAGE-MENT

PROTEC-TOR

DEVELOPMENT

WILL

"보이지 않는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정책개발·홍보·운영 담당직원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사업 개발로 새로운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모사업과 사업 효과를 알리는 홍보업무 등으로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야 하는 담당 직원들을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김준후

Q.안녕하세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지원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업과 함께 재단의 복지사업이 지역에 만들어 낸 변화를 알리기 위해 소식지, 신문광고, 언론보도, 서포터즈 봉사단 운영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회사 경영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경영평가 대상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 역시 회사의 방향과 방침에 따라 운영이 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재단 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 성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등을 관리하는 노무와 직원 기숙사, 재물 등을 관리하는 총무, 수입원·지출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김 재단 지원을 통해 수혜자들의 도움을 받고 변화되는 회복, 성장의 순간을 발굴하고 기록으로 담아내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 건강검진, 피복비 등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지원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바로바로 느껴지니까요.

Q.사업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가장 바쁜데요. 경영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실적관리 데이터에서 오류를 확인해야하기에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매달 하는 업무이지만 급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죠(웃음).

김 저는 재단 사업들의 시작과 끝에 맞물려 업무가 진행됩니다. 언론보도, SNS채널 운영 등을 비롯하여 모니터링 업무가 그렇죠. 계간지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발행하자마자 다음호 기획과 준비에 들어가야 해서 사실 계속해서 긴장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Q.2022년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강원랜드 희망재단과 통합되어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가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의 브랜드 네이밍이 '희망숲'인데요. 나무가 자라 큰 숲이 되듯 모두의 희망을 키워 큰 행복을 만드는 센터를 상징합니다. 사회공헌센터 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커뮤니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 관련 사업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고, 지자체, 복지시설 등 중복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 복지사업을 구축하여 사업비 투입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성과기반의 사업을 수행하여 기업경영 트렌드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사업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쪽 재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트렌드나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는 중장기 사업방향을 수립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식과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간식을 쏩니다 이벤트 후기

<피움 36.5>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복지관 계자 여러분께 간식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간식의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달콤한 간식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Thank You

TO. 태백시노인복지관

서울에서 귀촌하며 복지종사자로의 꿈을 부푸리 키워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을 응원 합니다. 대학생 시절, 태백 광산지역 사회사업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철암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주민들 만났습니다. 어르신들과 옥수수를 삶고 마을 주차장에서 함께 야외 영화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억이 쌓이고 문화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박로 뛰며 서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의 복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FROM. 김혜자 님

Thank You

TO.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미정 관장님과 함께 일하던 시기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장님께서는 동료의 입장에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시면서, 과정이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수고를 통해 삶터에 계신 이용자들이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을 생각하며 힘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FROM. 정윤원 님

Thank You

TO.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이나 가족과의 만남도 제한된 장애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염려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행여 당신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스스로 활동을 자제하며 돌봐주고 계신데요. 장애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FROM. 송춘자 님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에서 온 답장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송춘자 센터장님! 14년의 긴 세월동안 청춘과 열정을 함께 해 온 저희 정선프란시스꼬의 집을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애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시설 중증 장애인분들께서는 가족과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중입니다. 보내주신 간식 덕분에 저희 시설의 중증 장애인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맛있는 쿠키와 음료로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론 지치고 고된 일상을 보낼 때도 있지만 송충자 센터장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더욱 힘내며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웃음 꽃 활짝 피우시길,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가족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감동과 애정을 의미있게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강원랜드 복지재단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에서 온 답장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듭니다. 이런 시기에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간식은 생각지도 못한 한 줄기 온풍이 되어 마음에 봄을 피워 주었습니다. 보내주신 간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끈한 빵과 달달한 음료로 에너지 가득 충전한 선생님들 모두 더욱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안겨주신 삼척시수어통역센터 정윤원 선생님과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에서 온 답장

김혜자 선생님께서 태백시노인복지관으로 보내주신 피자와 치킨 덕에 수요일 오후 3시가 정답고 근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김혜자 선생님의 따듯한 마음이 느껴져서인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에도 마음만큼은 따뜻합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에 힘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태백시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이슬아 작가님의 책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을 주는 거야. 주면서 알게 되거든.”
그래서 너는 아침마다 말없니 나를 꽉 껴안았던 것일까? 안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사랑이 있지.
걸어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고 말야.

–이슬아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중

항상 사랑을 먼저 주시는 김혜자 선생님. 선생님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오래오래 간직해 주세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준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도 감사합니다.

정태영삼 현장소식

정태영삼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특파원이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복지, 봉사 현장!
그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함께 만나보세요.

Jeongseon

감미로운 앙상블, '아페라'

아리랑과 오페라가 만났다.

정선
유경호 특파원

정선에는 '아페라'가 있습니다. 정선의 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오페라 버전으로 편곡한 아리랑과 오페라의 합성어입니다. '아페라'는 정선 출신 소프라노 남수정 씨가 정선아리랑을 오페라 버전으로 편곡하여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성악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하던 중 인연이 된 정선아리랑의 젊은 소리꾼 최진실 씨와 프로젝트 공연 팀 '아페라'를 만들어 정선아리랑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맥을 잇고 있는 젊은 소리꾼 과 전통 성악이 만나 만들어내는 동서양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정선아리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발상지인 정선에서 애절하고 유장한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오페라 버전으로 폭 넓게 선보이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전통 민요를 비롯해 아름다운 선율의 오페라, 크로스 오버 장르의 곡,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국악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페라'의 대표인 남수정 씨는 "동서양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전통적인 우리의 멋과 오페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정선아리랑이 더 이상 진부하거나 낡은 음악이 아닌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문화공연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페라'는 다가오는 한 해에도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군 구석구석 아페라의 작은 울림이 큰 메아리 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우리 가락 우리 노래, 정선아리랑과 오페라의 멋진 합동공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aebaek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태백 연탄나눔봉사 현장

태백
오영희 특파원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가 매서워 집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아늑하다는 말인데요. 춥기로 소문난 강원도 태백지역에서는 예외입니다. 연탄으로 하루를 나야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태백지사는 지난 11월 23일 장애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듯한 마음으로 모은 총 3,000장의 연탄은 선정된 10가정에 각각 300장 씩 전달됐습니다.

이날 연탄나눔봉사에는 전기사랑여성모임도 동참했는데요. 전기사랑 여성모임 회원들과 한국전력 태백지사 지원들이 따스한 손길을 보태 봉사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훈훈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태백지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연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듯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탄 한 장에 웃을 수 있는 태백의 겨울, 모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Yeongwol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마음 챙김 프로젝트>

청소년 셀프 마인드컨트롤 능력 향상 효과

영월
엄 태 현 특파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하는 <마음챙김 30일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4세~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간 일상의 소소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50명 참여자들은 무드 트레킹과 감사일기 등을 활용해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는 경험을 통해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 건강을 증진했습니다. 또한 셀프 마인드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음처방전은 집중력 제로증, 외로움 바이러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와 증상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재치있는 용어로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는 11월 27일(토) 오후 1시에 청소년수련관 2층 어라연에서 최우수상 15명, 우수상 7명, 노력상 4명, 참가상 24명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는 1388청소년지원단이 함께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영월군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원 조직입니다. 영월군에는 47명의 1388청소년지원단이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복지, 의료·법률, 상담·멘토, 학교 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Samcheok

나들이로 코로나 블루 극복하다

교동지역 주민들의 동반자

삼척
이 은 영 특파원

지난 11월 5일 삼척시 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 나들이를 선물했습니다. 이날 나들이에 참석한 어르신은 총 9명. 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들 어르신을 모시고 민물고기 전시관, 가람 영화관 부근에서 열린 힐링 국화 전시회와 증산 이사부 사자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이웃 간 교류가 끊어져 외로운 일상을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소통과 정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들이 행사 이후에는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기념사진을 넣은 액자와 양말, 속옷 등을 전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달 관내 노랑통닭에서 20마리의 치킨을 후원바당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사랑의 반찬 나누기 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10월에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을 준비해 통장 님 등의 추천으로 30가구에 방문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기부, 아름다운 나눔 교동 e음 마을 창고를 통해 물품 나눔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을 따라가는 맛 지도

정태영삼 맛캐다로 인해 재개업에 성공한 지역 식당 중 계절에 맞는 메뉴를 선정해 소개한다.

정·태·영·삼 맛캐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은 2017년부터 영세식당 지원사업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맛캐다 지원단 및 서포터즈를 활용해 체계적인 식당운영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중이다.

봄

맛캐다 10호점 **별미구이쌈** (삼척시 중앙시장길 77) ➤ 맛캐다 12호점 **꼬들구이**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4) ➤ 맛캐다 8호점 **장성뚝배기** (태백시 장성로 21)

여름

맛캐다 3호점 **동강함박**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36) ➤ 맛캐다 6호점 **민카츠**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15번길 4) ➤ 맛캐다 13호점 **아나리 오리&쌈**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927-1) ➤ 맛캐다 17호점 **이곳 삼계탕** (태백시 먹거리길 55)

가을

맛캐다 1호점 **포앤카츠** (강원 삼척시 새천년도로 601-59) ➤ 맛캐다 5호점 **편백숲**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길 68-29) ➤ 맛캐다 7호점 **다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3길 9)

➤ 맛캐다 9호점 **보리밭 사잇길로**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646) ➤ 맛캐다 11호점 **길목 바베큐** (강원 태백시 함태길 72) ➤ 맛캐다 15호점 **낙두동**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102, 가동 102호)

겨울

맛캐다 2호점 **연화네 황소머리국밥** (태백시 통리2길 2) ➤ 맛캐다 4호점 **예손식당** (삼척시 도계읍 전두시장길 9-1) ➤ 맛캐다 16호점 **동강솥밥**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09-1)

➤ 맛캐다 14호점 **우가네맛찜**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32-2) ➤ 맛캐다 19호점 **옹이밥상**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19) ➤ 맛캐다 20호점 **김가차돌**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52-60)

겨울에 방문하면 좋을, 정태영삼 맛캐다 식당 리스트

맛캐다 2호점
연화네 황소머리국밥

황소머리국밥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점주가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황소머리국밥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따끈한 한 끼를 대접해 오던 점주는 그 간의 노하우에 맛캐다의 교육을 거쳐 한층 더 깊고 깔끔한 맛을 선보인다. 2008년 한보탄광 폐광으로 마을 상권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인내해 온 점주. 장터주물럭과 홍어삼합까지 더한 메뉴 구성으로 마을 상권을 이끄는 맛집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개업일 2018.03.05
메뉴 황소머리국밥, 장터주물럭백반, 홍어삼합
주소 태백시 통리2길 4-2
영업시간 09:00-21:00 (연중무휴)
연락처 033-552-1195

맛캐다 4호점
예손식당

비가 새는 건물에서 오랫동안 한우 생고기를 식탁에 올린 점주. 맛캐다 프로젝트에서 가게 내부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외관도 깔끔하게 바꿨다. 메뉴도 한우 생고기와 한방신약탕에서 지역 생산 기래기를 기반으로 한 메뉴로 변경해 시래기 전문 식당으로 탈바꿈했다. 시래기를 푸짐하게 넣은 시래기불고기전골이 주력 메뉴. 여기에 시래기해장국과 시래기들깨탕을 추가해 입맛대로 시래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업일 2018.06.22
메뉴 시래기불고기전골
주소 삼척시 도계읍 213-1
연락처 033-541-6443

맛캐다 14호점
우가네맛찜

설렁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내고 있던 우가네설렁탕이 우가네맛찜으로 돌아왔다. 기존 메뉴인 갈비탕과 도가니탕은 레시피를 개선하고 매운갈비찜과 오삼불고기를 주력 메뉴로 추가해 더욱 든든한 구성. 특히 매운갈비찜은 매운 맛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에게 입소문을 탔다. 갈비의 잡내를 잡고 직접 만들어 숙성시킨 양념장이 맛의 비결. 맛에 대한 점주의 욕심과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교육이 만들어낸 성과다. 노후된 매장까지 깔끔하게 리모델링해 남녀노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식사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개업일 2020.09.28
메뉴 매운갈비찜, 오삼불고기, 갈비탕
주소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32-2
영업시간 12:00~22:00
연락처 0507-1438-6711

맛캐다 16호점
동강솥밥

22년 업력을 자랑하는 손맛에 정태영삼 맛캐다의 컨설팅이 만들어 낸 새로운 맛집. 동강솥밥은 기존에 생선구이와 내장탕을 올리던 원주식당의 새로운 이름이다. 영월역 앞 다슬기 해장국 거리에 위치한 식당의 메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메뉴를 교체했다. 명태코다리조림과 황태들깨탕, 시래기 솥밥이 중심이 되는 정식 구성이다. 특히 인근 솥밥을 맛 볼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더욱 솥밥의 고소한 맛에 집중하는 곳. 동강솥밥에서는 항상 새로 지은 솥밥의 맛있는 소리가 울리고 있다.

개업일 2021.01.20
메뉴 명태코다리조림, 황태들깨탕, 시래기 솥밥
주소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09-1
연락처 033-374-2984

맛캐다 19호점
옹이밥상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식당. 수요일 분식데이와 금요일 스페셜데이를 활용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옹이밥상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19년 점주가 고향에 내려와 문을 연 옹이밥상은 곤드레 정식과 묵은지 찌개를 주력으로 판매하던 식당이다.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곤드레 정식은 옹이밥상의 메인 메뉴. 여기에 매일 바뀌는 조식뷔페와 분식데이, 스페셜데이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식당으로 재개장에 성공했다.

개업일 2021.11.26
메뉴 곤드레정식, 분식데이, 스페셜데이
주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19
영업시간 08:00~20:00(연중무휴)
연락처 033-563-8200

맛캐다 20호점
김가차돌

단란한 가족이 희망을 품고 개업한 도계 흑염소의 새로운 이름, 김가차돌은 재개장 후 매출이 251%나 증가해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점주의 성 씨를 따 이름 지어진 이곳은 차돌박이와 대패삼겹살, 소갈비살을 판매하는 구이 전문 식당이다. 깔끔한 밑반찬과 정성스럽게 손질한 고기, 직접 만들어 내는 특제양념장의 궁합이 기가막히게 어우러진다. 차돌박이 구이를 얹어 먹는 김가 초밥과 차돌된장밥도 빼놓을 수 없는 효자 메뉴.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까지 무장한 김가차돌은 정태영삼 맛캐다 식당의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다.

개업일 2021.12.28
메뉴 차돌박이, 대패삼겹살, 소갈비살
주소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52-60
영업시간 12:00~21:00(연중무휴)
연락처 0507-1494-3934

ON AIR

폐광지역 4개 시·군 취약계층 겨울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취약계층 3,200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 김치공장을 선정해 김장김치를 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10kg의 김장김치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김장김치로 겨울밥상에 행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ON AIR

추운 겨울 폐광지역 복지시설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합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와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운 겨울 폐광지역 복지시설에 전해진 따듯한 사랑의 온기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ON AIR

탄광근로 순직 유가족 초청 휴양프로그램 진행 완료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지난 11월 20일과 27일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탄광근로 순직 유가족 휴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순직 유가족 휴양 프로그램은 폐광지역 4개 시·군 탄광에서 순직한 근로자 유가족 중 80세 미만의 강원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여가활동 제공을 통해 삶의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그룹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80명의 순직 유가족 분들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ON AIR

폐광지역의 크리스마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산타가 되어 드립니다.

"소원하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켓몬스터 피규어, 학용품 등등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돌아갔습니다. 반짝이는 별빛처럼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에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ON AIR

강원도 미래 인재육성 강원랜드,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강원학사2(도봉)는 강원랜드 후원으로 설립된 곳으로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실천으로 온(溫)택트 복지 챌린지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정선군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4개소 총 100명의 아동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반영하여 목도리를 뜨개질로 제작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월)~28일(화) 하이원 리조트에서 지원 기간 동안 목도리 전달과 함께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 및 강원랜드의 역할에 대해 사회가치실현실 김창완 실장님의 교육 및 취업 멘토링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N AIR

2021년 마지막 온택트 복지챌린지 손뜨개 목도리가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됐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온택트 복지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참가자는 심재규 님이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된 사북초등학교 조부건 학생을 위한 손뜨개 목도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올 겨울 따뜻함을 선물한 심재규씨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부건이는 올해 6학년이 되는 유도부 학생입니다. 유도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유도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목도리를 하나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 복지챌린지에 참여했는데 뜨개질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 처음에 키트를 받고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뜨개질 강사를 하는 대학 후배가 떠올라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후배가 보내준 영상을 바탕으로 서툰 뜨개질을 시작했지요. 만들다 풀고 다시 만들기를 여러 번. 밤을 새워 뜨개질을 마무리한 아침, 부건이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하는 뜨개질이라 너무 힘들었지만 부건이에게 딱 맞는 목도리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부건이가 앞으로 더 훌륭한 유도선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부건 화이팅!

편집자의 편지

2022년 임인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용맹하면서도 지혜롭고, 위엄이 넘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피움 36.5> 독자 여러분께 호랑이의 기운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화적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갔지요.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봉사자분들과 대상자분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듯한 온기를 전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 해나갔습니다.
이번 호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그린에너지 지원,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복지 일선에서 대상자들을 만나는 지자체 공무원까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내일은 여전히 따듯할 것입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rner Introduce
희망스토리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그린에너지 지원사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린에너지 지원은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가정에게 에너지를 지원함과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한 신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지원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내려놓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알 립 니 다

<피움 36.5> 소식지 폐간 안내

강원랜드 복지재단 소식지 <피움 36.5>가 이번 호를 끝으로 폐간합니다. 2018년 발행되어 총 16권의 <피움 36.5>에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린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강원랜드 희망재단과 통합해 더 풍성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독자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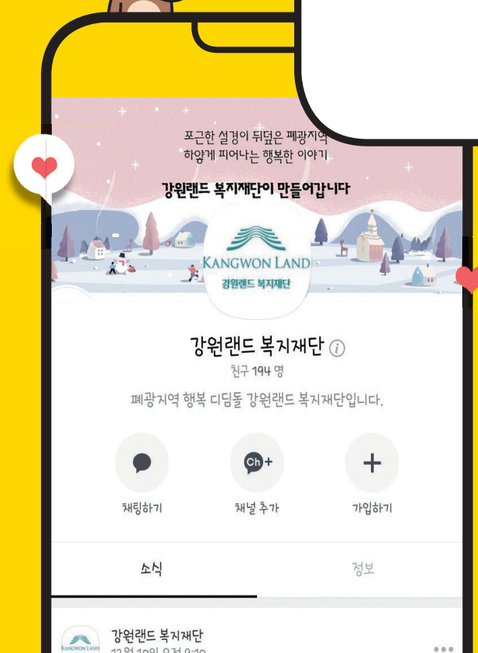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랜선 친구'가 되어 주세요!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더 많은 분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SNS 채널을 운영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가 되어 주세요! 다양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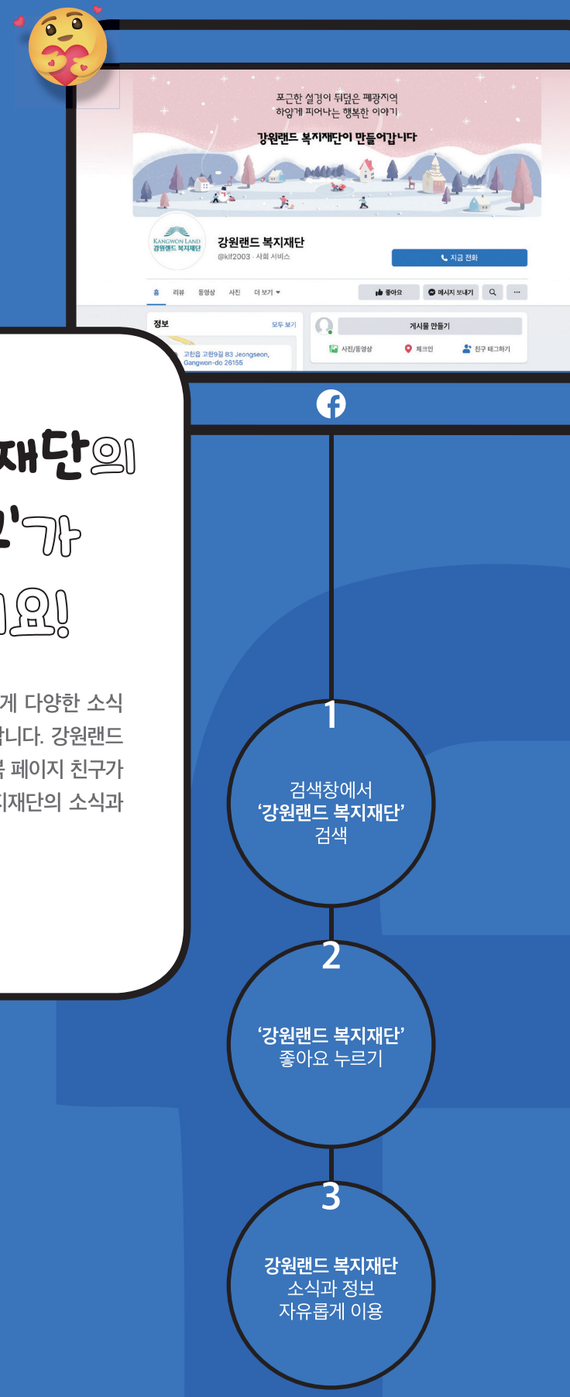
KANGWON LAND
강원랜드 복지재단

Kakao TALK

1.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 검색
2. 채널 목록에 **'강원랜드 복지재단'** 터치 후 채널 추가
3. **강원랜드 복지재단 채널** 소식과 정보 자유롭게 이용



facebook



1. 검색창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 검색
2. **'강원랜드 복지재단'** 좋아요 누르기
3. **강원랜드 복지재단** 소식과 정보 자유롭게 이용